

#

31 번째 니카라과 기도편지

현지학교에서 예배 후
사랑을 나누는 교회 가족들



중미에 있는 선교사 자녀와 한인 청소년들,
니카라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위한 힐링캠프 열려

[Yo Soy Cristian@: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진행
현 코스타 강사로 청소년 사역자를 섬기는 김현철, 이요셉 목사를 강사로



2013년부터 시작된 힐링캠프가 다섯번째를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미에 있는 선교사 자녀와 한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어린 학생들이 많은 저희 니카라과 사랑을 나누는 교회까지 청소년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떠한 믿음과 삶을 살아야하는지를 깨닫고, 확신하며, 준비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선교사의 간절함에 의해 짧은 기간 많은 강의와 집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섬겨주신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님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요셉 목사님, 두분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삶의 나눔들이 한인 청소년과 니카라과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었으며, 말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행동으로,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가족들 귀한 나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한 나눔 속에서 섬기기만 했을 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요한복음 3:16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맛난 피자를 사주신 김현철 목사님과 니카 가족들.
2. 한국 교회 가족들이 준비한 예쁜 선물을 나눠주시는 이요셉 목사님.
3. 예배와 피자파티를 마친 후 12월 바이블 타임을 나눠주는 김성현 선교사와 마누엘.
4. 모든 순서가 끝난 후, 빌렸던 학교 의자를 다시 돌려 놓으며 (뒤에 화산 보이시나요?^^)

이번 힐링캠프는 중미 선교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한 한인 청소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시간이었고, 니카라과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확인하여 위로 받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가져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한인 청소년들과 현지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선교의 꿈을 꾸는 힐링캠프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중미 외에도 한국, 미국에서도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에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니카라과 중미 한인 청소년들 집회 모습, 이 아이들 중 대부분은 선교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음세대의 선교사들입니다.



사진은 나눔선생님들과 졸업식 깜짝 선물 준비 중, 혼자 신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니카라과 현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다

Dr. Andres vega bolaños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졸업식에 기도와 설교자로 초대 받다.

힐링캠프가 끝난 후, Dr. Andres vega bolaños 학교에서 진행되는 졸업식에 기도와 설교자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작년 유치원과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기도자로 초대받았던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중고등학교(니카라과는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5년)에서도 졸업식 설교자로 참석해주기를 초대 받았습니다.

니카라과 경제나 가정의 문제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쓰신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축복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나? 라고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리 큰 일도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와 지역 사회의 관계가 매우 중요함을 생각할 때, 지난 선교 사역들이 지역 사회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사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매우 의미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위해 다시 산을 오르다

12월 20일 저희가 협력하는 지역 중 가장 먼 곳, 니카라과와 온두라스 국경에 가까운 히노테가 주 보카이 산악지역에 올라갑니다. 주로 커피 농장의 일을 도우며 간신히 생활하는 가족들과 아이들을 많이 사는 지역으로, 지난번 방문 때 절벽에서 차가 밀려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했던 험악한 산악길이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와 아이들에게 약속하였기에 이번에도 나눔선생님들과 함께 미리 요청하여 모아둔 옷들과 선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큰 어려움 없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여 많은 사랑을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기도들 가운데 예린이가 많이 컸어요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퇴원 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지만 감사하게도 큰 문제없이 예린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역 문제등으로 주일에 교회만 다녀오던 야외활동도 조금씩 근처 산책등 넓혀지고 있고, 병원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워 기는 걸 못하던 것도 이제는 침팬치 한마리가 집을 돌아다니는 것처럼 네발로 날라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엄마 김다이 선교사가 직접 만들어주는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예쁘면서도 과격하게 놀고 있네요.

한국은 날이 추워지면서 여러모로 더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시리라 믿기에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바라며 사랑으로 키워가봅니다.

이제 예린이는 조금 더 검사를 한 후에 날짜가 정해지면 3차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수술이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처음인 상황에서 혼자 예린이를 돌보고 있는 김다이 선교사와 니카라과에서 딸을 보고 싶어 뚫어져라 휴대폰을 보고 있는 김성현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부지 구입을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급격한 발전으로 부지 가격이 오르고 있으나 사역을 위한 좋은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2. 사랑을 나누는 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을 위해 마음을 모아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고 가정이 어려워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기도바랍니다.
3. 니카라과의 이단들이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신학 부재로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있는 니카라과가 신앙의 무지로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기도바랍니다.
4. 계속해서 지역 부모님들이 나눔학교가 언제 시작되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하루 빨리 장소가 해결되어 나눔학교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5. 선교사가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도바랍니다.

2017년 12월 7일 김성현, 김다이, 김예린 드림

니카라과와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God's plan for Latin America and Nicaragua.

김성현 선교사 김다이 선교사

e-mail jlovehuny@hanmail.net

"IGLESIA PRESBITERIANA COREANA DE NICARAGUA"
VALLE SANTO DOMINGO. PORTON UNICA 1C AL SUR 75 VARAS AL NORTE.
MANAGUA, NICARAGUA. P.O BOX NO. 1028

니카라과 연락처 국가번호 505) 8622-7609, 8622-7610

한국 - 국민은행 959102-01-352103 김성현 미국 - Wells Fargo 062000080 729090 8438 Youngmi Kim